

- 주요 뉴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멕시코에 25% 관세 부과 예고 상원은 주요 장관 인준
 - ECB 주요 인사, 지속적인 금리인하 예상. 일부는 금년 중반 중립금리 도달 전망
 - 영국 9~11월 실업률, 전기비 상승. 기업의 세금부담 증가로 향후 전망도 부정적
 - 중국 부총리, 무역 균형을 위해 수입 확대할 방침. 무역전쟁 반대 의견도 피력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트럼프의 취임일 관세 부과 보류, 국채금리 하락 등이 영향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트럼프 관세 우려 완화 및 대규모 AI 투자 기대 등으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헬스케어 관련주 강세 등으로 0.4%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국채금리 하락, 관세 우려 완화 등으로 큰 폭의 내림세 지속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모두 0.1%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인플레이션 재반등 우려 감소 등이 원인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 영향 등으로 2bp 하락

※ 뉴욕 1M NDF 증가 1430.5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32.3원, 0.22% 하락). 한국 CDS 하락

		1/21일	1/20일	전일대비			1/21일	1/20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049.2	휴장	+0.88%	국채 금리 10y	미국	4.58%	휴장	-5bp
	유럽	525.98	523.87	+0.40%		독일	2.51%	2.53%	-2bp
	중국	3,242.6	3,244.4	-0.05%		영국	4.59%	4.66%	-7bp
	일본	39,028	38,903	+0.32%	CDS 5y	한국	36bp	38bp	-2bp
	한국	2,518.0	2,520.1	-0.08%		중국	56bp	57bp	-1bp
환율	달러지수	107.95	109.35	-1.28%	위험 지표	EMBI+	-	휴장	-
	유로화	1.0428	1.0416	+0.12%		VIX	15.06	15.81	-4.74%
	엔화	155.52	155.62	+0.06%	원자재	WTI유	75.89	휴장	-2.56%
	위안화	7.2656	7.2731	+0.10%		구리	434.0	436.9	-0.66%
	원화	1,435.5	1,440.0	+0.31%		금	2,744.8	2,708.2	+1.35%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트럼프 대통령, 멕시코·캐나다 25% 관세 부과 예고. 상원은 주요 장관 인준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이후 열린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으며, 해당 조치는 2/1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 이는 이전에 예고한대로 불법 이민자와 마약을 자국에 공급하는 인접국 및 주요 교역국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
-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각서에 서명. 이번 각서에는 무역대표부(USTR)가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고 적절한 개정 방안을 권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 또한 상무부에는 중국이 트럼프 1기 당시의 무역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
- 특히 무역협정 검토 등 여러 지시 사항의 결과를 4/1일까지 제출하도록 구체적 시점을 명시하여, 4월부터는 강력한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음을 시사. 또한 주요 교역국과의 환율 정책도 검토하도록 지시. 그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화 약세를 주장했기에, 이와 관련된 일종의 환율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존재
- 이 외에, 미국 상원은 베센트 재무장관과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를 정식 인준. 루비오 장관은 히스패닉계 출신으로 對中 강경파이며 親이스라엘 성향. 특히 미국의 국익이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 베센트 장관은 국제무역의 불공정성은 관세 강화를 통해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피력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AI 관련 대규모 투자 계획도 발표할 예정. 구체적으로 OpenAI, Oracle, SoftBank가 자금을 출자하여 합작회사 'Stargate'를 설립할 예정. 해당 기업은 초기에 1000억달러를 투자한 뒤, 이후에는 향후 4년간 5000억달러까지 투자를 늘릴 계획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12월 중소기업 매출, 전월비 양호.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점차 확대

- 금융서비스 조사업체 Fiserv가 중소기업 매출을 기반으로 발표하는 중소기업지수가 작년 12월 146을 기록하여 11월(143) 대비 상승. 전체 매출에서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고급 식당 매출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확인

■ ECB 주요 인사, 지속적인 금리인하 예상. 일부는 금년 중반 중립금리 도달 전망

-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드 갈로 위원은 금년 여름까지 모든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인하가 가능할 수 있다고 언급. 한편 독일 중앙은행 총재 나겔 위원은 금년 중반에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및 중립금리 도달이 가능하며, 통화정책은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

■ 독일 1월 ZEW 경기기대지수, 전월비 하락. 소비 및 건설경기 부진 등이 반영

- 1월 ZEW 경기기대지수는 10.3으로 전월(15.7) 및 예상치(15.3) 대비 낮은 수준. 이번 결과는 개인소비 및 건설수요 침체 등에 따른 경기 부진 등에 기인하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 아울러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따른 무역부문 불확실성 증가 역시 경기기대에 부정적으로 작용

■ 영국 9~11월 실업률, 전기비 상승. 기업의 세금부담 증가로 향후 전망도 부정적

- 9~11월 실업률은 4.4%로 전기(8~10월) 대비 0.1%p 상승했으며, 이는 3~5월 이후 최고 수준. 시장에서는 정부가 기업의 세금부담을 크게 확대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기업의 고용 전망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

■ 중국 부총리, 무역 균형을 위해 수입 확대할 방침. 무역전쟁 반대 의견도 피력

- 덩쉐상 부총리는 무역흑자를 추구하지 않으며, 균형 잡힌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력이 우수하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하기를 원한다고 언급. 아울러 어떤 나라도 무역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 시장에서는 이번 발언이 미국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

■ 캐나다와 멕시코, 미국의 관세 및 이민 정책에 반발. 일부 보복 대응도 시사

- 캐나다 트뤼도 총리는 미국의 관세 강화 대비를 위해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으며, 미국의 관세 부과 수준에 비례하는 맞대응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강조. 한편 멕시코의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의 국경강화와 관련하여 자국의 주권과 독립을 지킬 것이며,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 피력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22 현지시각 기준)

- ECB 라가르드 총재 및 나겔 위원 발언, 독일 중앙은행 월간 보고서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의 부채 문제,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을 포함하는 종합 대책 시급 - 블룸버그**
(Restoring fiscal control can't wait much longer)
 -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정부부채는 낙관적인 가정 하에서도 '35년까지 GDP의 120%에 이를 전망. 이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9조 달러에 달하는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이는 어려운 과제.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개혁해도 10년간 3천억 달러 절감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며, 세금 인상 효과도 제한적
 - 결국 전체 지출과 수입에 대한 종합 대책 없이는 부채 안정화가 불가능한데, 정부의 움직임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는 감세연장을 최우선 과제로 밝혔는데, 이는 10년간 5조 달러의 추가 적자를 유발. 정부와 의회의 개혁 조치가 지연될수록 문제는 심각해지고 금융시장 혼란은 증폭될 우려
- **트럼프 정책, 장기적 측면에서는 결국 디스인플레이션을 유도할 소지 - Financial Times**
(Trump's victory could be disinflationary (eventually))
 - 트럼프의 공약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물가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관세 강화는 소비를 약화시키고,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은 소비 위축과 노동력 부족에 따른 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실제로 트럼프 1기 당시 관세 강화는 달러화 강세 및 수입물가 하락을 초래
 - 또한 양당은 바이든 시절의 경험으로 인플레이션 대응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전망. 민주당은 유권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공화당은 정치적 리스크를 의식해 물가안정을 강조할 가능성. 이에 결국 디스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연준의 통화정책, 채권금리와 트럼프 불확실성 등으로 변경 가능성은 낮은 편 - WSJ**
(After two years of smooth sailing, Fed ready to navigate rocky bond market, Trump uncertainty)
 - 다음 주 FOMC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으나 4% 중반은 역사적으로 정상 범위에 해당. 물가연동채권(TIPS) 금리와 기타 시장 기반 인플레이션 기대 역시 역사적 평균 혹은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에 근접
 - 이에 리치몬드 연은은 최근 금리가 제약적 수준이 아니었던 '04~'05년과 유사하며, 금리 정책을 변경할 만한 수준도 아니라고 평가. 파월 의장도 신중한 통화정책 접근을 강조. 다만, 인플레이션 기대 고조와 채권금리 추가 상승이 물가 상승 압력을 지속적으로 자극한다면, 연준은 양적긴축 종료 등의 대응책 마련에 나설 소지

■ **미국 노동시장의 주도권, 금리인상 여파로 노동자에서 기업으로 이동 - 블룸버그**

(The American Worker Has Lost All Leverage)

- 11월 채용률이 3.3%로 하락하는 등 '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 기록. 그러나 4.1%의 낮은 실업률에도 채용이 부진한 현상은 이례적. 이는 연준의 금리인상 여파로 팬데믹 이후 근로자들이 확보했던 협상력이 급격히 악화되며 노동시장 주도권이 기업으로 이동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 이러한 변화는 최근 기업들의 사무실 복귀 의무화 정책 등에서 반영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를 임금 인상 제한 등 근로자 압박 수단으로 활용. 한편 미국은 여타 주요국 보다 기본적인 노동자 보호 및 근로 기준이 취약한 상황. 이에 근로자 권리를 법제화하는 정책적 접근이 요구

■ **미국의 트럼프 재집권, 동맹 약화보호무역 강화 등 세계질서 재편을 의미 - Financial Times**

(Trump's second coming and the world)

■ **미국의 동맹국들,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등으로 불안한 미래에 직면 - 블룸버그**

(America's Allies Face Up to an Anxious Future as Trump Returns)

■ **미국 증시, 고평가 등으로 추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 저가 매수신흥국 투자는 유효 - WSJ**

(Make America Cheap Again)

■ **영국 경제, 리브스 정부 출범 이후 성장 동력 약화 및 재정 불안 가중 - 블룸버그**

(The UK's Not Out Of the Woods. It's Heading in Deeper.)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